185년 만에 모습 드러낸 '완영일록'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앞두고 완영일록 번역해 출간 · 가치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 개최

전라감영 복원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조선후기 실학자이자 전라감사를 역임했던 풍석 서유구 선생의 공문서 일기인 '완영일록(完營日錄)'이 번역돼 세상에 나왔다.

전주시는 1833년 4월부터 1834년 12월까지 21개월간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한 풍석(楓石) 서유구 선생이 재임기간 필사한 공문서 기록 약 33만2000여 자(字)를 변역한 '완영일록'이 출간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185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완영일록에는 전라도 56개 지역에서 있었던 △송사 △환곡 △농정 △향시 △효자 · 열녀의 정려 △망궐례 △기우제 △진상품 △부임과정 △각 지역 수령의 인사고과 등의 내용이 기록돼있다.

특히 완영일록은 관찰사가 재임 전 기간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고 않고 오로지 행정, 사법, 군정 등 감사의 직무 전반에 걸친 공문서만을 기록해 남긴 일기로는 현재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어 감사의 직무와 감영문화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풍석문화재단 전라북도지부가 최근 전주향교 문화관에서 완역일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완역일록의 가치를 부가시키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풍석문화재단 전라북도지부(대표 서창훈)는 이번 완역작업을 기념해 이날 전주향교 문화관에서 완역일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완역일록의 가치를 부가시키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180여 년 전 전라도 감영의 공문서를 공개하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세미나는 완역된 완영일록의 전반적은 내용을 소개하는 최진규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부적으로는 배경옥 전북대 박사과정이 완영일록에 기록된 전라관찰사의 부임과정과 운영체계를 엿볼 수 있는 '완영일록으로 본 전라감사 서유구의 교유서와 교구, 연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김순석 전통문화연수원 원장이 '완역일록과 전락감사계록을 통한 전라도관찰서 포폄(근무평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변주승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안동교 전남대학교 교수와 김건우 전주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완영일록의 출간을 맡은 서창훈 풍석문화재단 전북지부장은 "완영일록 완역 출간으로 전라감사의 구체적 업무와 전라감영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완영일록 출간을 계기로 전주, 전라도 역사를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노력과 전라도에서 활발했던 실학의 지혜를 현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완영일록은 전라감영 복원 사업의 다양한 콘텐츠로서 활용가치가 크다"면서 "앞으로 완영일록의 기록을 통해 전주의 역사가 깊어지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완영일록은 지난 2016~2017년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번역이 이뤄졌으며, 이를 토대로 풍석문화재단 전북지부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윤문과 교열을 거쳐 발간했다.

/송효철기자

익산문화관광재단,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 선정… 관광도시로 발돋움 기대

익산시와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사업에 선정, 문체부 관광기금 5000만원 · 한국관광공사 보조금 5650만원 등 총 1억여원의 국비를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의 전환 이후 첫 관광 사업 공모 선정으로, 문화관광재단으로의 성공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지역주도형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지역관광 플랫폼'으로써, 지역 내 관광관련 산업과 관광관련 협회, 주민조직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주도형 관광사업을 추진하며, 관광사업 기획 · 홍보 마케팅 · 관광품질 관리 ·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수행한다.

익산시와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지역 여행사, 숙박업협회, 외식업협회, 문화시설, 관광전문가 등 지역 내 관광관계자로 구성된 관광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관광태세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으로 대표되는 백제 유적역사지구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거리, 춘포역 등과 연계, 근대역사권으로 확장되는 관광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관광도시 익산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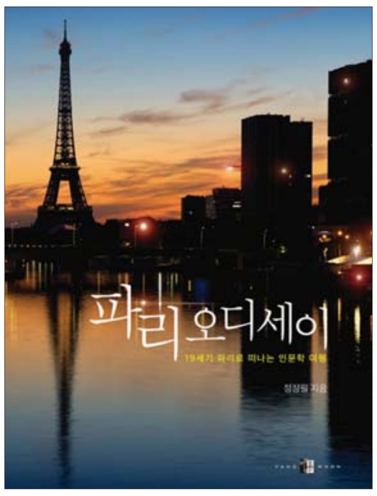
익산시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관광도시로의 약진을 선포하였고,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산업과로, 익산문화재단을 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관광산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사업 선정은 관광도시 익산으로의 비상에 커다란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재단 관계자는 "전북도와 익산시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번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으며, 관광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익산이 가진 무한한 관광잠재력을 가시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이번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의 지역관광추진조직(DMO)선정을 기점으로 하여, 각 시군도 조기에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설립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19세기에 가장 큰 빛을 진 낭만도시 '파리 오디세이'



'파리 오디세이'는 파리에서 공부한 정상필 씨가 쓴 책이다. 프랑스 수도 파리는 낭만적인 도시다. 파리지앵, 벨 에포크, 건축물, 백화점, 박물관, 공동묘지, 박람회 등 21가지 키워드로 파리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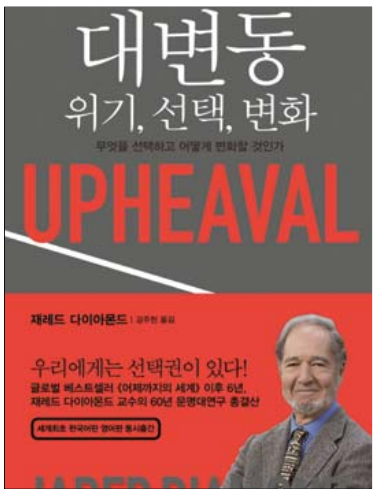
"파리의 카페가 특별한 것은 300년 남짓한 기간 동안 파리의 카페를 거쳐 간 이들과 그들의 수많은 자취 때문일 것이다. 조금 과장하자면 프랑스 혁명의 이론적 토대가 된 계몽사상이 꿈틀거린 곳도 카페였다. 대혁명의 불씨가 당겨진 곳도 파리의 카페였고, 현대인의 책장을 채우고 있는 숱한 고전들이 탄생한 곳도 바로 이곳 카페였다"

정씨는 프랑스 여성과 결혼, 네 아이의 아빠로 살고 있다. "파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대혁명이라고 생각한다. 공화정과 왕정을 오가며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격동을 겪었던 19세기 전반에 걸쳐 파리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뿌리는 대혁명이었다"고 짚었다.

"파리라는 도시가 형성된 것은 이미 1000년 전 일이어서 더 오래된 흔적도 도시 곳곳에 남아 있지만, 현대의 파리는 19세기에 가장 큰 빛을 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19세기 파리로 여행을 떠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이유다. 파리의 겉모습을 한꺼풀 벗기고 보면 더욱 친숙한 파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48쪽, 1만5000원, 양문출판사

/뉴시스

국가위기 해결책 12가지,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재레드 다이아몬드(82)의 베스트셀러 '어제까지의 세계' 이후 6년 만의 책이다. 다이아몬드는 이번 신작을 통해 시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마침내 완성했다.

그의 60년 문명 연구의 총결산이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특기인 비교 연구를 통해 압도적인 지식을 담았다. 우선 무엇이 '위기'인지 정의하고, 위기 해결에 영향을 주는 12가지 요인을 분석했다. 변화를 요구하는 내 · 외부적 압력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오늘날의 핀란드, 칠레, 인도네시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과 미국, 세계가 직면한 대변동을 해설하고, 현재와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간 불평등, 환경자원의 부족, 기후변화, 핵전쟁, 인구 변동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를 다룬다. 다가올 세계를 전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냉철하게 파헤친다.

인류사적 · 문명사적으로 거대 담론을 제시한 기존의 저작들과 달리,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세계에 집중한다. 책에서 다루는 7개국의 모습은 우리 현대사의 면면과 닮아 있다. 러시아라는 강대국을 이웃한 핀란드, 군사독재를 경험한 칠레와 인도네시아, 지리적 ·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아온 일본,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미국까지, 그들의 위기와 선택, 변화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요인을 12가지로 설명한다. 12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7개의 국가를 분석한다. 12가지 요인의 핵심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정직하게 평가'해, 새롭게 닥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부분과 바꿔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가려내고, 궁극적으로 '선택적 변화'를 이루어 내자는 것이다. 위기의 원인과 형태는 다양하지만, 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은 비슷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3부 11장으로 구성됐다. 제1부(개인), 제2부(국가: 위기의 전개), 제3부(국가와 세계: 현재진행형인 위기들) 강주현 옮김, 600쪽, 2만4800원, 김영사

/뉴시스